

설교: “거룩”

본문: 사 6:1-8

이사야는 BC 8세기에 약6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몰락의 기로에 서 있던 이스라엘에서 선지자로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조국 이스라엘은 고대근동 제국들의 패권 쟁탈로 곧 주권을 잃게 될 상황에 놓였었고, 내부적으로는 국정과 국토가 북과 남으로 분단되어 국력이 분산되고 약화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은 신앙적 그리고 도덕적 회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한반도의 상황과 너무나도 유사해 주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남쪽 유다 사람인 이사야가 그러한 파란만장한 격동기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하는 장면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유다의 왕 웃시야가 죽던 해에(약 BC 740년경) 지성소에서 스랍들이 모시고 선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사 6:1-2).

웃시야 왕의 죽음으로 인해 그 사회가 더욱더 혼란스럽고 부정해진 상황에서 이사야가 목격한 하나님의 모습은 정 반대인 거룩 그 자체였습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여섯 개의 날개를 가진 스랍들이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다른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다른 두 날개로 날며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사 6:3).

천사도 감히 바라볼 수 없는 그래서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거룩한 주권 앞에서 자신의 발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적으로 거룩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1-5장까지에 기록된 ‘부정한 이스라엘’의 속성과는 정 상반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에 이사야는 온전히 압도됩니다.

그 거룩하고 위엄스러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신은 얼마나 부정했던지, 그는 본능적으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사 6:5)라고 고백합니다.

자기는 그래도 왕궁에 있으면서, 또 성전에서 지내면서 조금은 나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5절에 보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보니, 자신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과 별 차이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결할까요?

---

예화:

지금은 한국의 화장실들이 너무나도 깨끗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에는 재래식 ‘변소’였습니다. 변소에 앉아 있으면 ‘구더기’들이 서로 꿈틀 거리며 올라옵니다. 서로 잘났다고 올라오다 똑 떨어지고, 똑 떨어지고...

욥기 25:4, 6절에 욥의 친구 빌닷이 욥이 자신을 의롭다고 계속 주장하니까 이렇게 반박합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나는 박사야 그러다 똑! 나는 건강해 그러다 똑! 나는 도덕적이야 그러다 똑! 나는 하나님이 필요없어. 그러다 똑!

---

구약은 하나님의 속성을 여러모로 묘사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함축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레위기에는 ‘거룩함’의 히브리어인 ‘과도쉬’(קדש)를 150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된 언약백성이 그분과 같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레 11:45).

출애굽기 19: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제사장 나라란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상을 하나님께로 중보 할 수 있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사야가 소명을 받은 시기에, 이스라엘의 본질적인 문제는 사회.정치.경제를 넘어 거룩함의 문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상대적으로 사회봉사도 많이 하고, 선교사도 많이 파송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거룩하지 못합니다. 교회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거룩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구약의 모든 제의의 일차적인 목적은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에 앞서 지성소와 성막과 진영과 사람을 포함한 진영 안에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민수기 5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위해 그곳은 정결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함으로 몰락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은 거룩한 영광으로 나타나십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다시금 거룩해지는데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 거룩함 앞에 회개하는 이사야에게 스랍 중의 하나가 제단에서 핀 솟을 가져와 이사야의 입술에 대어 그를 정화시킵니다. 그리고 천상에서 하나님의 소명이 큰 소리로 선포됩니다.

이사야서 6: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명이 얼마나 압도적이었던지, 주님의 부르심을 들은 젊은 이사야는 반사적으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사 6:8하) 하고 즉시 긍정적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문을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가 전혀 예고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사 6:9-10)

이사야가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가 기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좋은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대변해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마도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했던 것을 절실히 후회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이 아닐 수 있습니다. 축복이 아니라 심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러한 순종의 거룩을 행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나가는 말:

예화: “Felebration”